

신의

다이아



소개글

내가 쓴 신의의 글을 하나하나 모아 놓은 것입니다.

목차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36	5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35	8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34	10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33	13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32	16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31	18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30	21
• 구가의 서ost	26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9	29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8	34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7	37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5	40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4	43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3	45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2	47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1	49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0	51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9	54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8	57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7	59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6	61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5	63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4	66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3	68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2	70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1	73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0	75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9	77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8	79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7	82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6	84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5	87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4	89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3	92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2	95
• 신의 그후 이야기(하늘세상)-1	97

"최영씨~이제 와요?"

은수가 영을 보고 뛰어나온다.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은수가 웃으며 영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다.

"아까 그 혼서 보냈다는 여자가 왔었어요."

은수가 영을 본다.

"정말입니까?"

영이 놀라 멈춘다.

"응.그런데 내가 욕도 좀(?)써서 보냈어요."

은수가 웃는다.

"예.."

영이 대답한다.

"그런데,당신 왜 그래요?"

은수가 고개를 가웃한다.

"임자가 그리 해서 그자가 임자를 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영이 머뭇거리다 말한다.

"아..그럴 수도 있겠네.에이~뭐..걱정 마요.얼른 자요."

은수가 웃으며 영을 방으로 끈다.

영은 심각한 표정이다.

다음 날-

"최영씨!나 당신 따라 갈래요.전의시에 있을 거니까.."

은수가 얼른 준비를 하며 말한다.

"후..다했다.빨리 가요."

은수가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핀을 꽂는다.

궁 앞이다.

"최영씨~당신 일 끝나고 데리러 와요~나 기다릴게요."

은수가 웃으며 손을 흔든다.

"알겠습니다."

영이 피식 웃는다.

강안전-

회의중이다.

"전하!"

도치가 급히 들어온다.

"무슨 일이냐?"

공민이 의아해하며 묻는다.

"전의시에 불이-"

도치의 얼굴이 무척 어둡다.

"전의시...?"

영이 흠칫한다.

"대장,어서 가 보세요."

공민이 그런 영의 마음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영이 얼른 뛰쳐 나간다.

전의시-

"임자,임자!"

영이 불길 속에서 은수를 찾는다.

은수가 보인다.

불길 속에 쓰러져 있다.

"대체 누가.."

영이 중얼거리며 은수를 안는다.

미친 듯이 겨우 빠져나온다.

"아,최영!"

안재다.

"뭐야.너는 왜 왔냐."

최영이 안재를 본다.

"불길을 끄라는 명이셨다.넌 빨리 의원이라도 찾아가 봐.의선님도."

안재가 혀를 찬다.

"알았어."

영이 뛰어간다.

병영 앞이다.

영은 은수와 의원이 있는 방만 보며 앉아 있다.

"대,대장.대장도 다치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 가보시는 것이.."

충석이 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됐어."

영이 일어선다.

방에서 의원이 나온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후..."

영이 한숨을 쉬며 방 안으로 들어간다.

은수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다.

영이 은수의 얼굴을 쓰다듬어 본다.

어떡하죠...?저한테 돌던지지만 마세요..ㅠㅜ

저녁-

똑똑똑...

"누구세요?"

은수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달려나간다.

"?처음 보는 분인데..누구신지?"

은수가 문 밖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묻는다.

"아...여기 최 영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그녀가 묻는다.

"아,네.제 남편인데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흠...저는 유희라고 합니다.그 분의 내자 될 사람이죠."

유희가 호호호 웃는다.

"..뭐요?그 사람 제 남편이라니까요!"

은수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분도 날 보면 생각이 바뀌실 겐?"

유희가 갑자기 반말을 쓴다.

"이게..야!!"

은수가 약이 올라 소리친다.

"..뭐,뭐?이 년이 지금 뉘 앞이라고 반말에 소리를 질러 대느냐!내가 누구 딸인지-"

유희의 얼굴이 벌게져 악을 쓴다.

"야!!니 몇 살이니?!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어디서 반말에 쌍소리야!!뭐?영의정 따님?!그 벼슬까지 찼으면 그 잘~~난 애비한테 예의 범절도 안 배웠어?응?!어디서 할 일이 없는 년이 오밤중에 남의 집 와서 년,년 거리고 앉아 있어!!"

은수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지른다.

"이..이것아-!"

유희가 얼굴이 빨게져 말한다.

"니,니년의 목을 당장 따 달라고 아버지께 고할 것이야!"

유희가 씩씩거린다.

"이런 시베리아 말미잘같으니라고!아비 끼고 돌면서 그럼 그 잘난 아빠 좀 봐 보자!어?!보자보자 하니까 정말 내가 진짜 이 말 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도저히!안 되겠다~응?너 집이 가서 아빠한테 똑똑히 전해라?!영?!지금부터 한.마.디.도!!빼놓지 말고~~무슨 아비가 자식을 이따위로 키웠니?보니까 얼굴 반반한 게 어디서 굴러들어와가지고 생판 치는데,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은수가 한숨을 후 쉰다.

"니가 나보다 예뻐?키가 커?말을 잘해?나이가 많아?그렇다고 성격이 좋아?응?!아무 것도 아니잖아!흥!그런 게 어디서 최영씨를 얻겠다고 난리니,난리는?이 바보야,최영씨는 너 같은 거 절.대.로!안 좋아해!!알아 들었니?집에 가!"

은수가 획 안으로 들어간다.

"진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와서..어이가 없네!"

은수가 씩 웃는다.

"니...니년이 감히 내 아버님과 우리 집안을 모욕했겠다!..용서 못 해..."

유희가 눈을 부릅뜨고 중얼거린다.

"죽일것이다...그래서라도 그 사람을 나와 혼인하게 만들 것이야...반드시!"

유희가 터덜터덜 걷는다.

욕에(?)컴터가 놀랬나 봐요...자꾸 먹통..ㅠㅜ

"저...그..그것이.."

영이 딴 곳을 보며 말을 잊지 못한다.

"말해요.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은수가 그런 영을 본다.

"..안 좋은 얘기예요?"

은수가 영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말한다.

"..예.그렇습니다."

영이 겨우 시선을 돌려 은수를 본다.

"괜찮으니까 말해요."

은수가 웃어 보인다.

"궁에서 혼서..를.."

영이 차마 말을 더 못하고 고개를 숙여 버린다.

"혼서?요?당신 나랑 결혼,그니까 혼인 했잖아요?"

은수가 당황해한다.

"..죄송합니다.."

영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

"당신이 죄송할 일이 뭐 있어요.괜찮아요.당신만 싫다고 한다면.."

은수가 애써 웃는다.

"근데 높은 귀족이라도 되요?"

은수가 영을 혼든다.

"예.영의정 대감 따님이십니다."

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영의정이면...거절하기 어렵겠다...어쩌지..?"

은수가 한숨을 쉰다.

"...우리 일단 이거 다시 보내요.그 집으로.절대 안된다고."

은수가 일어선다.

"...알겠습니다."

영이 은수를 따라 일어선다.

그 ㅇ메물(?)을 다시 보낸뒤...

"흠...이제 뭘 해야 돼요?"

은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영을 본다.

"기다리십시오."

영이 앉는다.

"어떡해..어..떡해야 하지?"

은수가 안절부절 못한다.

"임자."

영이 은수의 어깨를 잡는다.

"..응?뭐요?네?"

은수가 갑자기 고개를 돌린다.

"왜 그러십니까?"

영이 안절부절하는 은수를 보고 묻는다.

"아..그게..사실..겁나요...당신 빼앗길까 봐..그럴 리는 없겠지만."

은수가 훌쩍인다.

"걱정하지 마십시오..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영이 은수를 안아 다독인다.

"흠...그렇겠죠..?당신이니까..."

은수가 눈물을 달고 웃는다.

"예."

영이 고개를 끄덕여 준다.

다음 날-

"어찌지?"

은수는 마당에 서서 난감하게 원가를 보고 있었다.

"웁니까?"

영이 방 밖으로 나온다.

"아..그 물건들이 다시 왔어요..어제 그거."

은수가 영을 쳐다본다.

"그...물건들이요?"

영이 은수를 본다.

"응..어제 그거."

은수가 꺾꽂이를 가리켜 보인다.

"어찌죠?"

은수가 멍한 얼굴로 서 있는 영을 본다.

"다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오면 보냅니다."

영이 결심한 듯 다시 껌짝을 들어 밖에 내다놓는다.

"아...그러면 되겠네.머리 좋은데요?"

은수가 영을 쳐다보면 웃는다.

그렇게-

매일마다 그 껌짝이 왔다.

그때마다 은수와 영은 돌려보냈고...

그(?)대감 집-

"유희야.어쩌면 좋으니?"

어떤 여인이 자시신 앞에 있는 여인에게 말한다.

"뭐가?왜 그래,언니?"

유희가 자신의 언니를 본다.

"우달치 대장 최영 이라는 사람한테 넣은 혼서랑 예물..항상 다시 돌려보낸대.너 이제 어떡하니?"

언니 유린이 울상이다.

"뭐.왜 언니가 그래.내 일인데 뭐.그분도 아마 나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걸?"

유희가 웃는다.

"그 싸가지 없고(?)난리만 피워대는 의선보다 내가 더 예쁘지 않겠어?"

유희가 호호 웃어 보인다.

새로운 라이벌 등장!

다음 날-

영이 궁에 가고 은수가 혼자 마당에서 놀고(?)있다.

그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원가를 열심히 만든다.

"아얏!"

은수가 얼굴을 찌푸린다.

"아야..따거..."

풀에 길게 베인 손을 움켜 쥔다.

잠시 후-

"이헛~됐다!"

은수가 환하게 웃는다.

은수가 만든 건 소국을 엮어 만든 장식이다.

"우리 방에 걸어야지~"

은수가 그것을 들고 도도도 뛰어간다.

"와~예쁘다!그 사람도 좋아하겠지?"

은수가 환하게 웃는다.

"음~빨리 왔으면 좋겠다!"

은수가 마루 위에 앉아 발을 까딱거리며 말한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지?그 사람은 아닐 테고..."

은수가 고개를 가웃한다.

은수가 문을 연다.

어떤 짐꾼(?)이 서 있다.

커다란 상자를 툭.내려놓고 가 버린다.

"저기요?이게 뭐죠?"

은수가 그 사람을 부르지만 헛하니 간다.

"씨이-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냐!"

은수가 욕을 내 뱉는다.

"근데 이걸 뭐야?이런 거 산 적 없는데?"

은수가 상자를 본다.

"깡깡~"

은수가 상자를 마루 위로 옮긴다.

"뭘까?잠깐만 보고 닫아도 되겠지?"

은수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본다.

"히익~"

은수가 화들짝 놀란다.

"이게 뭐야?금에다,은에...옥까지?대~~~박..."

은수가 상자 안을 보고 실소를 한다.

"잘못 왔나 보네.."

은수가 한숨을 쉰다.

"그 사람 오고 나서 말해 봐야 겠다."

은수가 영을 기다린다.

저녁~

영이 들어온다.

"아!최영씨!왔어요~?"

은수가 그에게로 도도도 달려간다.

"오늘,완전 이상한 (?)게 왔어요."

은수가 상자를 가르켜 보인다.

"이상한...거요?"

영이 은수를 쳐다본다.

"응!"

은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뭘니까?"

영이 마루에 앉는다.

"보석에...금에,은에다가...완전 귀한 것들요!"

은수가 열심히 말한다.

영의 얼굴이 어두워 진다.

"아마,잘못 왔나 봐요."

은수가 으쓱한다.

"...임자.제가 궁에서...말입니다."

영이 은수를 앉히며 말한다.

"궁에서 뭐요?"

은수가 영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월까지~~~~~요?

"그리고요."

은수가 말한다.

"뭐요."

영이 은수를 본다.

"임금님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은수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한다.

"허..."

영이 어이가 없어 입만 벌린다.

"어쨌든!당신은 가만히 있어요!일은 다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귀여운 얼굴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한다고 하던 은수는 5일 만에 온데간데 없었다.

"아우...힘 들어...못하겠어..."

은수가 엎드려 끙끙대며 앓는 소리를 낸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보다못한 영이 나섰다.

"당신...이젠 괜찮아요?"

은수가 영을 본다.

"괜찮습니다."

영이 은수를 눕혀 놓는다.

"이러니까 꼭 내가 아프고 당신이 안 아픈 것 같네."

은수가 웃는다.

영도 웃,웃는다.

1시간 뒤-

"우와~진짜 깨끗하다...난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되던데..."

은수가 감탄한다.

"이래서 청소 잘 하는 남자 만나야 된다고 그랬구나~"

은수가 헤헤 웃는다.

"...?예?"

영이 은수를 본다.

"아~친구들이 하던 말이에요.청소 잘 하는 남자 만나야 편하다는..."

은수가 영에게 얘기한다.

"그건...저보고 청소를 다 하라는 애깁니까?"

영이 뜨악...한다.

"...음...응!"

은수가 해맑은(?)얼굴로 고개를 힘차게 끄덕여 보인다.

"아니예요~ㅋㅋ농이에요,농!"

은수가 손을 내젓는다.

영이 한숨을 내 쉰다.

"으이구~순진하기는."

은수가 영을 보며 킁 웃는다.

"임자,저 자주 놀리지 마십시오."

영이 은수를 곱지 않은(?)시선으로 본다.

"알았네요."

은수가 흥!한다.

"아 참!당신 내일부터 궁에 가도 되요."

은수가 말한다.

"예."

영이 대답한다.

"상처 한 번 보여 줘요."

은수가 영에게 말한다.

"그건 안 됩니다.이제 멀쩡 합니다."

영이 반걸음 뒤로 물러선다.

"여자라고 그러네.쫓쫓."

은수가 으이구...한다.

"어쨌든...나 피곤하니까 좀 잘게요."

은수가 영에게 말하고 들어간다.

저 미술관에 갈거예요...

은수는 조금 걷는다.

"바보...지생각도 해야지.."

은수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 얼굴을 무릎에 꼭 묻는다.

"...?의...선?"

대만이 뛰어오다가 은수를 보고 멈춘다.

"응?대만씨?"

은수가 눈물이 남은 눈으로 대만을 올려다본다.

"의선...우,우십니까?"

대만이 흠칫한다.

"뭐..."

은수가 머리를 긁적인다.

"왜,왜 그러십니까?"

대만이 묻는다.

"흑시..."

대만이 말을 잊지 못한다.

"맞아요.최영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수가 벌떡 일어난다.

"대장이요?"

대만이 머리를 긁적인다.

"네!그 사람이,글쎄또,막...지뭘 안 챙기면서 싸워가지고...,막...다친거 있죠?"

은수가 손짓까지 하며 말한다.

"휴...뭐.원래 그런 사람이니깐 마음 넓은 내가 참아야죠."

은수가 피식..웃는다.

"어서 기 봐요.일 많은 것 같은데."

은수가 대만에게 손짓해 보인다.

"예,예."

대만이 뛰어간다.

"아이고...근데 임금님한테 내일 궁에 못 간다고 말해야 되는데...뭐라고 해야하나...서신을 쓸까?...아니다..난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써..그

럼...아,최상궁님을 불러서 내일 그 사람 못 간다고 임금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해야지~"
은수가 웃으며 뛰어간다.

그 다음 날...

최상궁은 궁에서 애먹고(?)있었다.

'영이 그놈...또 어디가 아프길래..의선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도 없고..'

최상궁은 편전으로 향하며 생각한다.

'그놈 만나면 확!그냥 패기라도 해야지..'

최상궁은 간단(?)하게 생각을 끝낸다.

"전하..최상궁 들었습니다."

최상궁이 말한다.

"들어오세요."

공민이 대답한다.

"어쩐 일로 나를 다 찾았습니까?"

공민이 최상궁을 본다.

"그것이...최영 그놈,..이 아니라..우달치 대장이 다쳐 나오지 못한답니다."

최상궁이 말한다.

"네?많이 다쳤다 합니까?"

공민이 최상궁을 본다.

"의선 말씀으로는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최상궁이 공민을 본다.

"아..알겠어요."

공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만 왕비께 가 보세요.그 사람(노국)한테도 전해 주고."

공민이 손짓을 한다.

"예.전하."

최상궁이 물러나온다.

한편-

병영...

"임자!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이 은수에게 소리를 높여 말한다.

"당신!...휴...궁에 못 간다고 전했구요!"

은수가 바락바락(?)소리친다.

"왜 임자가 그런 걸 정합니까?그건 제가 알아서 한다구요!"

영이 멘탈붕괴(?)를 느끼며 말한다.

"그 몸으로 어찌려고!"

은수가 소리지른다.

"하...그럼 임자 마음대로 하시든가."

영이 한숨을 쉰다.

"그러게 누가 다치래요?"

은수가 흥,한다.

"당신 괜찮아질 때까지 궁 못 가요."

은수가 말한다.

"임자.그건..."

영이 은수를 본다,

"또 임금님 앞에서 쓰러지면 어찌려고?"

은수가 콧방귀를 킠다.

"...알겠습니다."

영이 겨우 대답한다.

"진작에 이랬으면 좀 좋아."

은수가 웃는다.

영은 큰일났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올리는 거라 좀 짧아요..

영은 은수 앞에 앉아 있다.

"임자...제발 일어나십시오..."

영이 은수의 손을 잡아 주며 말한다.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영이 한숨을 쉰다.

그렇게 3일 켜다.

"아...왜...임자...제발 눈 좀 떠 보십시오..."

영이 원망스러운 마음에 주저앉는다.

영은 3일째 자지도,먹지도 않고 은수의 옆에 앉아만 있다.

"하..."

영은 잠깐 어지러워 벽을 짚고 선다.

"임자가 일어나시기 전에는,절대..먹지도,자지도 않겠습니다."

영은 중얼거린다.

은수의 얼굴이 창백하다.

영은 또다시 그 자리에 앉는다.

"으음..."

은수가 얼굴을 찌푸린다.

"임자?임자..정신이 됩니까?"

영이 벌떡 일어난다.

"아으...덕흥...군...어딴데요?"

은수가 몸을 일으킨다.

"덕흥군...없습니다."

영이 겨우 말한다.

"아..당신이 혼내 줬지...히히..."

은수가 힘겹게 웃는다.

"임자...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영이 어이가 없어 한숨을 쉰다.

"아니예요...그럼 울어요?내가?"

은수가 입꼬리를 내려 보인다.

"아닙니다."

영이 말한다.

"아...배고파요."

은수가 배를 움켜 쥔다.

"알겠습니다."

영이 나온다.

"대만아."

영이 부르자 대만이 쏘르르 달려온다.

"예..예!대장!"

대만이 차렷!(?)자세로 선다.

"의선 식사좀 준비해 드려."

영이 방을 가르켜 보인다.

"그,그럼 드,드디어 깨어...나셨습니까?"

대만이 놀란다.

"어."

영이 대만을 밀며 말한다.

대만이 허둥지둥 뛰어간다.

영은 피식...웃고 들어간다.

"왔어요?"

은수가 맞이한다.

"근데...나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은수가 영에게 묻는다.

"3...일..?"

영이 말한다.

"헉...그렇게 오래?내가 미쳤었나 보네..."

은수가 헐...한다.

"여,여기 식사요!"

대만이 들어온다.

"와~밥이다~"

은수가 얼른 숟가락을 잡는다.

"아,잠깐만요!대만씨!"

은수가 나가려는 대만을 잡는다.

"예,예?"

대만이 멈칫한다.

"나 누워 있었을 때,최영씨 어땠어요?"

"뭐,뭐가 말입니까?"

대만이 어깨를 으쓱한다.

"그이까,밤 자 먹고 자른 자 자나,이년 거뇨.(그니까,밥 잘 먹고 잠은 잘 잤나,이런 거요.)"

은숙가 먹으면서(?)말한다.

"잠도 안 자고,바,밥도 안 먹었습니다."

대만이 속상한 듯 말한다.

영이 대만을 째려본다.

"네?(네?)"

은수가 킁킁거린다.

"최영씨!"

은수가 밥을 다 먹고 대만이 나간 후 영을 본다.

"예.."

영이 대답한다.

"진짜예요?대만씨 말 다?"

은수가 째려본다.

"예."

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그럼 속상하잖아요..내가 나쁜 놈 인거 같아서.."

은수가 입술을 삐죽 내민다.

"그건..."

영이 우물쭈물 한다.

"휴...됐어요."

은수가 손을 젖는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

은수가 새끼 손가락을 내민다.

"무슨..."

영이 뭐...한다.

"이거,손가락 거는 거."

은수가 손가락을 걸어 보인다.

"아.."

영이 그제야 손가락을 건다.

은수가 웃으며 혼든다.

"이제야 기억나기는.바보."

은수가 웃는다.

"바보라니..."

영이 발끈한다.

"잠깐!나 아프잖아요.잘래요."

은수가 손을 펴 막는다.

"아..."

영이 '아프다'는 말에 멈칫한다.

은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다.

영은 은수의 이불을 덮어 주고 방에서 살짝 나간다.

다음날-

"최영씨~"

은수가 영의 방으로 들어간다.

"임자?"

영이 뒤를 돌아본다.

"당신 내일 궁에 가죠?"

은수가 영에게 묻는다.

"예."

영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내일 같이 가요."

은수가 영의 팔을 혼든다.

영은 어질어질해 비틀한다.

"알겠습니다.그러니 이 팔은 그만..."

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앗싸~!"

은수가 웃는다.

"근데...당신 어디 아파요?"

은수가 영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묻는다.

"잠깐!이 피...뭐예요?"

은수가 영의 옷에 묻은 피를 보고 놀란다.

"그때...덕흥군 집에서...좀..."

영이 말한다.

"봐요.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은수가 영을 끌고(?)방으로 간다.

"히익...이거 봐.깊이 베였잖아요..팔도.다리도..."

은수가 울먹인다.

"임자..."

영이 당황한다.

"그러게 좀 막지...으이구...아플 텐데...참아요?"

은수가 눈물을 닦고 말한다.

"예."

영이 대답한다.

"후...다 했다.."

은수가 붕대를 감아 주고 일어난다.

"참...자요.아플 땐 자는 게 최고예요."

은수가 억지로 영을 눕힌다.

은수는 영을 결국 자게(?)만들고 나온다.

휴...며칠동안 밀렸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꿈 같던 일주일의 지났다.

"냥군님~잘 갔다 와요~돼도록 빨리 오고~"

은수가 영에게 손을 흔들며 해맑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영도 픽 웃으면서도 손을 흔든다.

영이 궁으로 간다.

은수는 영의 모습이 안 보일 때 까지 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간다.

"오늘은...비누나 만들어 볼까?요즘에 안 만들었는데."

은수가 얼른 약재와 필요한 재료들을 챙겨 온다.

은수는 앉아 비누 만들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은수는 만들며 중얼거린다.

뒤에서 어떤 연기가 스스스...새어나온다.

은수는 집중하느라 보지 못한다.

"아...졸려..."

은수가 갑자기 쓰러진다.

누군가가 은수를 자루에 넣어 들쳐 메고 나간다.

그가 간 곳은 어느 화려한 집.

은수가 눈을 뜬다.

"어...뭐야!여긴 어디야!"

은수가 벌떡 일어난다.

"일어나셨습니까.의선."

은수가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다.

덕흥군이다.

은수가 벌떡 일어난다.

"당신...또 뭐 때문에 나를 잡아온거야?"

은수가 전에 당했던 독을 떠올리며 부르르 떤다.

"이젠 의선을 제 내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사내로서."

덕흥이 말한다.

"흥.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싫어."

은수가 어깨를 으쓱 한다.

"의선이 제 말에 안 따라 주시면 최영 그 자가 죽을 텐데요."

덕흥이 웃는다.

"뭐...?"

은수가 놀란다.

"...어떻게 하면 최영 그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은수가 한숨을 쉰다.

"저와 혼인을 하셔야 겠지요."

덕흥이 말한다.

그 징그러운 목소리로.

"으..."

은수가 부르르 떤다.

"모셔 드려."

덕흥이 시녀에게 말한다.

은수는 시녀들에 의해(?)욕실로 안내된다.

은수는 씻고 나온다.

'당신.어떻게든 살릴 거예요.당신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도 상관없어.'

은수는 차분하게 생각한다.

은수는 옷을 갈아입는다.

한복으로.

그리고 제일 안쪽 방으로 안내된다.

덕흥이 있다.

"어서 오십시오."

덕흥이 징그럽게(?)웃는다.

은수는 못 견딜 것 같지만 애써 꺾 참고 간다.

"꺅!"

덕흥이 은수를 잡아 눕힌다.

"이 손 뉘안 놔?"

은수가 마구 버둥거렸다.

"역시,의선이군요."

덕흥이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최영 그자.살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덕흥이 은수에게 말했다.

"..."

은수는 조금 조용해졌다.

덕흥이 씩 웃고는 은수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은수는 손에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 얼른 손을 뗐다.

"흠.아직 좀 부족한데..."

덕흥이 옆에 있던 병을 집어들어 은수에게 먹였다.

"독입니다.며칠 뒤에는 죽겠지만 오늘은 힘만 빠질 것입니다.제 내자가 된다면 해독을 해 드리겠지만."

덕흥이 병을 던져 버린다.

은수는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낀다.

덕흥이 은수의 겹옷을 벗긴다.

은수는 말할 힘도 없어져 덕흥이 하는 대로 몸을 맡긴다.

덕흥이 은수의 겹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벗겨 내고 속옷만 남긴다.

덕흥이 만족스럽다는 듯 웃는다.

은수는 섬뜩해한다.

은수는 영이 오길 기다린다.

덕흥이 은수에게 깊게 입을 맞춘다.

은수는 이 상황이 미칠 것만 같다.

덕흥이 속옷을 벗길려던 찰나,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덕흥이 짜증난다는 듯 은수를 밀치고 일어난다.

영이다.

"최...영씨..."

은수는 영의 모습을 어렵פות이 보며 와 쫓구나...싫어 의식을 놓아 버린다.

영은 덕흥을 베려 검을 뽑는다.
"대장!안 됩니다.저자는 원의 명을 받고 온 자입니다."
충석이 말린다.
"상관없다."
영이 표정 없는 얼굴로 말한다.

여럿의 복면을 쓴 자들이 영을 둘러싼다.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이다.
영은 그들은 상관 않고 덕흥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은수를 보니 독에 당한 것 같다.
울컥해 덕흥에게로 달려든다.

복면 쓴 자들이 영의 몸 여기저기를 뺨다.
영은 막지 않는다.
은수가 저리 되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든다.
영이 덕흥의 팔을 뺨다.

"최...영.네 이놈..."
덕흥이 피를 뿌리며 쓰러진다.
영은 은수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선다.
옆 탁자 위의 병 두개를 잡아 옷 속에 넣어 두고 은수의 옷을 입혀 안는다.
그대로 나가버린다.

집-
영은 멍하니 앉아있다.
그 옆에는 장빈이 앉아 진맥을 하는 중이다.
"그 병은요?"
장빈이 영에게 묻는다.
영은 말 없이 병을 건네 준다.

"후...다 됐습니다.그게 해독제였습니다.잘 가져오셨습니다."
장빈이 일어난다.
"대장.정신 차리십시오."
장빈이 한숨을 쉰다.
"아...예."

영이 고개를 숙인다.

다음 날-

"흥!어제 먼저 시작한 건 지였으면서 아침 되니까 왜 그러냐는 순진한 얼굴로 바라보는 그 심보는 뭐예요?누가 보면 괜히 내가 먼저 시작한 줄 알겠네!어이구~이 참에 연기나 전공해보지 그러세요?최영씨?응?"

은수가 옷을 입고 나오면서 빈정(?)거린다.

영은 픽 웃는다.

"궁에 들를 겁니다.빨리 준비하십시오."

영이 말한다.

"뭐요?그렇다면 좀 예쁜 옷 주지!이게 뭐예요!"

은수가 짜증을 낸다.

잠시후-

둘은 병영에서 나왔다.

궁으로 가는 길이다.

"저기요."

은수가 영에게 말을 건다.

"왜요."

"우리 혼인까지 했는데 뭐라고 부를까요?"

"예?"

"서로.호칭이요."

"아..."

"최영씨는 내가 최영씨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임자가 편한 거라면 상관 없습니다."

"그래요?그럼...낭군님?싸이코?아~둘 다 좋은데...모르겠다,둘 다 부를게요.당신은 나 뭐라고 부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차~눈치 없기는.그냥 임자라고 계속 불러요.난 그게 제일 좋더라."

"알겠습니다."

영이 고개를 끄덕한다.

궁에 도착했다.

"전하.신 우달치 최영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린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대장?"

공민이 영을 부른다.

"아,예."

영이 문 옆에서 나온다.

"왜 없었어요?"

"아...의선이 갑자기 잡으셔서..."

"알겠어요."

공민이 웃는다.

"아,내 그대를 부른 이유는 한 달 휴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민이 말한다.

"와~휴가요?감사합니다~"

은수가 좋아라한다.

"역시,의선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내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돈,제물,가구,보석...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길래 왕비가 생각해내준 것 인 데 역시 이것은 효과가 있나 보군요.의선과 우리 대장께서도 좋아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공민이 미소짓는다.

"왕비님은 정말 센스가 좋으시다니까요~"

은수가 말한다.

"센...스?"

공민이 따라하 본다.

"아,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아런 말을 자주 쓰시는 분이이라."

영이 수습(?)한다.

"이만 나가 보겠습니다."

영과 은수가 물러나온다.

"아~좋다~"

은수가 웃는다.

영도 오랜만에 웃는다.

"이눔아!"

"고모!"

최상궁이다.

"고모님!"

"아,의선..."

최상궁이 은수에게 인사를 한다.

"어디 가는 것이냐?"

"당연히 병영이지..."

영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 말한다.

"니 집 따로 있다."

"원소리야,고모..."

영이 어깨를 으쓱한다.

"전하께서 하사하 주셨다.이것아."

최상궁이 면박을 준다.

"빨리 가.궁의 뒤뜰에 있다.집은 니가 챙겨."

최상궁이 가 버린다.

그렇게-

하루 종일 집을 옮기고...

"헉헉..."

은수가 한숨을 쉰다.

"이제 방에 들어가 봐요."

은수가 쏘르르 들어간다.

영도 따라 들어간다.

"와~"

은수가 웃는다.

"여기 너무 좋다.소국도 많고,그 나무에서도 가깝고,마당도 있고,아담해서 딱 살기 좋아요.나 이런 집에서 꼭 한 번 살고 싶었어요."

은수가 바닥에 앉는다.

"..."

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본다.

"자!이제 자요~"

은수가 불을 끄고 눕는다.

언제나처럼.그의 옆에.

그렇게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이 되었다.

어느새...

혼례가 끝나고...

(죄송해요...정말 죄송해요...혼례를 쓰자니 뒷골이...)

은수는 방안에 등불 하나를 켜 놓고 앉아 있었다.

밤이었다.

"아...왜 안 와..."

은수는 밤이 늦도록 영이 오지 않자 초조해 졌다.

"안 되겠다."

은수는 일어나 문을 열어 얼굴을 뺨뚱히 내밀고 밖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어이~대장~최영씨~"

은수는 영을 불러 보았다.

"음...왜 안 와?"

은수는 한숨을 쉬었다.

"남군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은수를 끌어 안았다.

"어?"

은수가 뒤를 돌아 보았다.

"아~놀랬잖아요!"

은수가 한숨을 쉬며 웃어 보였다.

영이었다.

"크크...들어가요~"

은수가 영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최영씨~나 머리 위에 이거 남자가..."
은수가 머리 위의 관을 가르키며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영이 갑자기 끌어 안아서 말이 중간에 끊기고 말았다.
"잠깐...만요!"
은수가 말했다.
"아거 좀 벗고..."
은수가 헉헉거리며 말했다.

그제서야 영이 은수를 놓아 주었다.
"휴우~"
은수가 한숨을 쉬었다.
영이 관을 떼어내 주었다.

은수가 영을 향해 웃어 보였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영의 이성을 똑...끊어 놓았다.
"임자.이제는 우리 둘 밖에 없으니..."
영이 은수에게 다가섰다.

"그렇죠~아...아니...왜 이래요?잠깐만요...으악!"
은수가 점점 뒤로 물러서다가 침상에 다리가 걸려 비명을 지르며 침상에 앉았다.
영이 은수를 안아 똑바로 눕혔다.

은수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영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영이 자신도 침상에 누우며 은수를 바라보았다.

은수는 고개를 돌려 영을 바라보았다.
영이 은수의 옷을 하나씩 벗겨 나가며 입을 맞추었다.
은수는 순순히(?)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은수의 옷이 다 바닥에 떨어지자 영의 옷도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수의 얼굴은 그럴 수록 점점 더 빨강게 물들어 가기 시작했고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눈을 떴다.

'아...몸이 부서질 것 같아...여긴 어디지...아...'

은수는 어젯밤 일이 떠올라 얼굴이 발그스름 해졌다.

'맞아...내가 기절하듯 잠이 들지 않았으면 계속 사랑을 나눴겠지...아이고...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이 부서질 것 같긴 하지만...'

은수는 웃으며 생각한다.

"임자?"

영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응?헉...벌써 일어났어요?"

은수가 놀라 벌떡 일어난다.

영이 옷을 내민다.

"어서 입으십시오."

영이 말한다.

"네."

은수가 그 옷을 받는다.

영도 옷을 입고 있다.

은수가 옷을 입고 나온다.

헉헉...

땀글 줌요...

은수가 쓰러져 버린다.
영이 당황해 은수를 얼른 침대에 눕힌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다.

그 병이었다.
영이 그 병을 꺼냈다.
덕흥군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조심하게...'

영은 병을 따러다가 멈칫했다.
'만약 이게 해독제가 아니라면...'
고개를 저으며 은수에게 약을 먹인다.

2시간 후...
은수가 깨어났다.
"어? 뭐지..."
은수가 놀란다.

"최영씨!"
은수가 영을 부른다.
영이 들어온다.
"근데 나...독에 당한 거 아니었어요?"
은수가 묻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다시 고려로 돌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이 대충 말한다.

"아... 위험해서?"
"예."
"그리고 보니 이제 하루 남았네요.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은수는 조금 아쉬운 얼굴이다.

은수는 노국의 방으로 들어간다.

"저기...왕비님."

"아,의선."

노국이 맞이한다.

"이제 고려로 돌아갈 때가 다 되서...짐을 준비하세요."

"아,예.알겠습니다."

노국이 짐을 챙긴다.

공민도.

그렇게...

다음날-

"이제 가요."

그들은 천혈로 갔다.

휘오오...

"열려 있다.."

은수는 약간 아쉬워 하며 들어갈 준비를 했다.

...

쿵!

"으...고려 맞아요?"

은수가 눈도 못 뜨고 물었다.

"맞습니다."

영이 대답했다.

(참고-고려 옷 입고 있어요^^)

노국도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났다.

"앵?여긴 저녁이잖아?"

은수가 얼굴을 찌푸린다.

"빨리 가요.저녁이네."

은수가 짜증을 내며 먼저 걷는다.

"그런데 의선께서는 혼인...안 하십니까?"

가는길에 노국이 살며시 물었다.

"혼인...이요?"

은수가 얼굴이 붉어져서 물었다.

"흠...좋은 남자가 하나 있긴 한데..."

은수가 골똘히 생각하는 척 하며 말했다.

영은 왠지 머르게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

"근데 그남자가 좀 지 몸 맘대로 굴려대서 혼인하면 고생 좀 할 거 같아요."

"임자!"

영은 단번에 자신이란 걸 알고 소리친다.

"알았어요!"

은수가 웃음을 터뜨린다.

영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아 그 병을 챙겼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덕흥군은 돌아오며 웃었다.
"하하..앞으로 닥칠 일은 생각도 못하겠지?"
이렇게 말하며 품에 손을 넣었다.
"어...어?왜...없지?떨..어뜨렸나?"
덕흥군은 짜증이 났다.

"아...그...영 이라는 놈 만났을 때 흘렸나 보군."
덕흥군은 영이 그 병의 용도를 모르기를,하고 빌었다.
"성가셔지니까..."
덕흥군이 다시 가기 시작했다.

한편-
은수가 돌아왔다.
"왔어요~빨리 끝나서~"
은수는 집으로 들어섰다.

"아~배고프다..."
은수는 얼굴을 찡그렸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잠깐!잔소리 할려면 그만뒤요.진짜 배고프단 말이에요."
은수가 손으로 막았다.

영은 은수에게 덕흥군에 대해 말하려다 그만뒀다.
"아~물이나 마셔야겠다."
은수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

영은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잠깐..."

그러나...

은수는 이미 물을 마신 뒤였다.

은수가 갑자기 비틀한다.

"아...뭐야..."

영이 물컵을 들어 냄새를 맡는다.

"독..."

일주일 후-

영은 고려에서처럼 엄청난 회복력(?) 덕분에 더 일찍 퇴원할 수 있었다.

은하는 왜 아무일도 안 일어나지...싶었다.

은수와 영은 지금 싸우고 있었다.

"아니..지금 벌써 퇴원해요?"

"아,진짜!괜찮다고!임자가 검으로 찔렸던 것 덕분에 필요하지 않은 회복력까지 생겼다고!진짜!무슨 사람이 걱정이 그리 많아!"

영은 오랜만에 버럭질(?)을 하고 있었다.

"휴우...좋아요.그리 해요."

은수가 결국 손을 들었다.

집-

영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마음이 찝찝했다.

뭔가 불안했다.

그때-

은수가 휴대폰을 들었다.

"아,나 병원 갔다 올게요.일이 있네."

은수가 다시 신발을 신고 손을 흔들었다.

"아,예."

영은 마주 웃어 주었다.

영은 조금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짚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마침 찾아가려 했는데,무척 잘 됐군."

영의 옆에 누군가가 앉았다.

영이 바라보았다.

'덕흥군'

영이 생김새에 놀랐다.

덕흥군인 줄 알고.

"자네가 최영인가?"

덕흥이 물었다.

(이름 덕흥이에요.)

영은 대답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덕흥군이 웃더니 가 버렸다.

"조심하게나..."

라고만 말하고.

영은 뭔가 하고 보다가 옆에 있는 병을 집어들었다.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다.
은하가 뛰쳐 나갔다.
"은하 왜 저러니?"
은수의 부모님이 고개를 가웃했다.

"그러게요."
은수는 걱정이 되었다.
(은수야 너 너무 착한 거 아니니?)

은하는 나가 차를 타고 나갔다.
어딘가에 도착했다.
은하는 내렸다.

그 집은 기철의 집이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은하는 들어갔다.
"아.이제 오셨습니까."
기철이 나왔다.

은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제 마음을 굳혔어요.은수...말이에요.그 옆에 있는 최영이란 사람...나한테 오게 해 주세요.그년...죽이고서라도..."
은하는 주먹을 쥐고 말했다.

"흠...그렇게 해 드리지요..."
기철이 음흉하게 웃었다.

은하는 나와서 한숨을 쉬었다.
저번에 이미 고려에 대해 털어놓고 말해준 사이였다.

그는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의뢰를 해도 반드시 일을 처리해 주었다.

은수는 왕비님과 임금님이 생각나 방으로 갔다.

"왕비님~이 곳은 좀 다르죠?"

문을 열며 웃는다.

"아,예..."

왕비가 주위를 둘러보다 얼떨떨한 얼굴로 말했다.

"적응되실 거예요."

은수는 왕비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우달치 대장은...?"

왕비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괜찮대요."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가 볼게요."

은수가 문을 닫고 나왔다.

"은하...마음 많이 상했나?"

은수는 소리치던 은하가 걸려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걱정할 일 밖에 없네..."

은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따리리~

"영?여보세요?"

은수는 전화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병원으로 올래?"

엄마였다.

"왜?어쨌든...갈게..."

은수는 옷을 걸치고는 밖으로 나왔다.

"은하야.병원 가는 데 같이 가자.."

은수는 은하 방 앞에 서서 말했다.

...

갑자기 은하가 나와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은수는 얼른 따라갔다.

병원-

"헉헉....최영씨!"

은수가 헉헉거리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히히...괜찮아요?"

은수가 웃으며 영의 팔을 잡았다.

영은 은수를 보자 화색이 되어 맞이했다.

"예..."

영은 적응이 안 된 듯 좀 불편한 표정이었다.

"걱정했잖아요~"

은하가 갑자기 들어와 웃으며 영을 끌어안았다.

"이게 지금 무슨..."

영이 놀라 얼른 은하를 떼어냈다.

은수는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영이 그런 은수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그러다 뭔가 떠오른 듯 은수를...

꼭 껴안아 주었다.

은수는 놀라다가 웃으며 영을 맞껴안았다.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 줘야 하는지 아는 남자는 드물죠...



푸른 달이 뜨던 날 ❄️

"이제야 온거야?그사람은?"

"다쳤어.그래서 왔어."

"아..."

은하는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예."

영은 이미 은수의 겹에 찰려서 그런지 좀 면역이 생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은수의 부모님은 은수의 걱정어린 눈길을 보더니 말했다.

"은수야!영이는 우리가 데리고 갔다 올게.있어."

"하지만...휴...네..."

은수는 부모님의 엄한 얼굴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수는 거실에 앉아 있는 은하에게로 다가갔다.

"은하야.뭐하고 지냈어?"

"그냥,잘."

은하는 대충 대답했다.

은수는 마음을 먹은 듯 은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은하야.너...최영씨한테 관심있지?예전처럼....뺨을 생각 하는 거지?"

"!...."

은수는 심호흡을 한다.

"그렇지만...은하야,난 최영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준비도 돼 있어.그정도로 난 그를 사랑하고,또 진심으로 좋아해.헤어지게 됐을 때...2년을 그를 찾아 헤맸다고..."

은수는 은하가 영을 포기하기를 바라며 말한다.

이때까지 힘들었던 일을 다 떠올리며,하늘에게 야속한 마음으로.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때-

은하가 벌떡 일어났다.

"뭐야...그런 말 하려고 부른 거였어?!난 내 반쪽을 못 찾아서 평생을 헤맸다고!그런 내가,겨우 찾은 그가,언니 거라고?싫어.아니.아니야.언니게 아니라고!내 것이 될거야...됐어,이런 의미 없는 얘기...그만하자!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내가 한번 잡은 사람...못 놓는다는 거.어떻게든 갖는다는 거..."

은하는 울며 돌아서 방으로 뛰어갔다.

"그래도...난 알아.그는 날 떠날 수 없다는 걸..."

은수는 중얼거렸다.

"그사람...최영이라고 했던가...?"

은하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말해 본다.

"흠,그 얘기 다 거짓이겠지.안 오면 놓아야지,어떻게 2년을 기다려?허풍은..."

은하는 콧방귀를 킈다.

"난 남자 갖고 한달도 못 붙잡고 있었지..."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울적하게 베게에 얼굴을 묻는다.

"이런 생각 말자...좀..."

"영은 괜찮으려나..."

은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전화라도 해야지..."

띠리리...

"여보세요?"

"엄마,최영씨 괜찮아요?"

"응,걱정 마."

"아... 다행이다."

"응"



푸른 달이 뜨던 날 ❄️

은수는 허겁지겁 짐을 챙겼다.
부모님도 준비를 했다.
그동안 왕비와 왕도 준비를 했다.

"준비 다 하셨어요?"
"예,의선.이제 갑시다."
왕이 대답했다.

"그럼 빨리 가요.이사람 점점 상태 나빠지는것 같아요."

은수는 얼른 가려 했다.

"아,예..."

왕비와 왕은 호위무사를 데리고 궁에서 나왔다.

"아,열려 있다.어서 들어가요."

"이자들은요...?"

왕과 왕비가 우달치를 가르켰다.

"가도 되요~"

은수는 우달치들에게 손짓을 해 보였다.

우달치들이 주춤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자 이내 마음을 놓고 사라진다.

휘이이...

쿵!

"아...."

"괜찮으십니까,왕비."

왕이 넘어져 신음을 내는 왕비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아...예.전하.."

왕비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잡고 일어섰다.

"어~?왕비님~!"

"아,의선...장난치지 마세요..."

왕비가 은수의 장난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죄송~ㅋㅋ"

은수는 막 웃었다.

"아,최영씨..."

은수는 웃음기가 싹 가셔서 걸음을 재촉했다.

은수는 갑자기 막 걸기 시작했다.

은하가 문을 열었다.

bo

영이 비틀하여 힘을 잃고 쓰러지려 했다.

"대...대장!그...그러게 왜 무리하십니까!저...저희에게 시키실 것이지..."

대만이 영을 받아 안으며 울먹였다.

은수는 장빈을 밀치고 영을 안아 눕혔다.

"이사람...너무 위험해요.아무래도 하늘세상에 다시 가야 겠어요.마침 내일이 열리는 날이니..."

"그곳에 가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네...그곳에 가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어떤 병이든 치료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동하겠습니다."

"네..."

은수는 영을 부축해 마차 쪽으로 갔다.

"임금님,왕비님.이사람이 좀 다쳤는데요...어떻게 마차에 좀 타도 될까요?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쳐서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왕비가 말했다.

"타세요,의선."

"아,고마워요..왕비님."

은수는 영을 끌고 탔다.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습니까.....?"

왕비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저 지키다가요."

은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꾸했다.

"하늘세상에 갈 생각이예요.그곳에서는 치료 할 수 있어요.아...왕비님,임금님도 가실래요?거기서는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일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여행 가신다 하고 가요,같이."

은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됩니까?"

"당근이죠!"

왕비가 놀란 듯 묻자 은수는 흔쾌히 대답했다.

"우리같은 땅의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닐텐데..."

"가도 될까요,전하?"

"그리 해 보겠습니다.의선."

왕과 왕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뒤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다.

"와아-"

은수가 간신히 고개를 돌려 보니 주상과 왕비가 탄 마차와 우달치들이 있었다.

사병들이 막아서며 덤비기 시작했다.

"와 졸졸 알았어요...."

은수는 영을 보면서 아픔도 다 잊고 눈물이 살짝 맺힌 눈으로 웃었다.

영은 멀리서 은수를 보고는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왕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달치들에게 명을 내리라는 의미였고 은수를 구하라는 의미였다.

영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시작해."

영이 우달치에게 지시했다.

우달치들도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칼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피가 튀었다.

영도 간신히 은수의 앞까지는 와서 베고 있었고 우달치들도 계속해서 죽이고 있었지만 사병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위험했다.

은수는 자신의 앞에서 위태롭게 싸우는 영을 보며 걱정을 했다.

'이사람 다치면 어떡해...'

그러나 간신히 싸우는 영의 신경에 거슬릴까 말하지는 못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병이 은수에게로 검을 휘둘렀다.

영이 온몸으로 검을 대신 맞았다.

"최영씨!!!"

은수는 놀란 마음에 영을 애타게 불렀다.

"최영씨...당신이 왜 그걸 맞아요...어떡해..."

은수는 묶여 있는 몸을 원망하며 피를 흘리며 검으로 몸을 의지하며 버티고 있는 영을 보았다.

그때-우달치 총석과 몇몇이 은수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싸우기 시작했다.

어느새 사병들이 거의 다 죽고 우달치들만 기진맥진하여 주저 앉아 있었다.

우달치들이 은수를 풀어 주었다.

"영씨...어때요...?아플텐데...그걸 왜 맞아요!또...지키려다가 그러는거...난 못참아요...조심좀 하지..."

은수는 흐느꼈다.

그때 장빈이 왔다.

"의선...괜찮습니까?"

"난 괜찮죠..."

"이 사람은 원래 강한 사람입니다.일단 의선의 상처를 먼저 보죠."

"흑..."

은수는 장빈에게 상처를 보여주면서도 영을 보았다.

"흠...다행히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달다 만 정도 입니다.이 약을 바르시면 일주일 정도 후면 나을 겁니다."

장빈은 약을 바르고 은수에게 약을 전해주었다.

은수는 약을 받았다.

영은 어느새 일어나 있었다.

진기로 몸을 진정시키고 검을 들어 남은 진기를 다 모아 검을 덕흥군에게로 던졌다.

"아,아니...."

덕흥군은 영의 눈빛에 놀라 뒷걸음질쳤다.

쉬익-

검이 날아와 덕흥군에게 꽂혔다.

"으윽..."

덕흥군이 쓰러졌다.

그림자는 자객이었다.

자객은 은수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들고 있던 컵의 물을 은수에게 먹였다.

그리고는 은수를 자루안에 넣고 자루를 들고 나왔다.

"으음...."

은수는 정신이 들어 일어났다.

"여,여긴 어디야..."

"의선,일어나셨습니까."

"덕흥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제 내자가 되겠습니까?"

"싫어요!그런 거 안 될 거야!"

"마지막이라 했습니다.나중에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싫어!"

"의선을 가두어라!내일 고문을 할 것이니."

은수는 고문이란 말에 드라마에서 본 것이 떠올라 무서워졌다.

은수는 다시 감혔다.

"고문이면...그 막 불로 살 지지고 그런거 아냐...."

다음날...

어떤 쇠창살로 이루어진 마차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은수가 묶여 있었다.

포졸이 은수를 끌어내렸다.

은수를 광장 중앙에 있는 의자에 묶었다.

한편 영은...

영은 정신이 들어서 몸을 일으켰다.

"아,정신이 들었습니까,대장."

"그런데...의선은요.."

"아,주무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예."

영은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장빈...의선께서 없으신데요...?"

"그렇리가요...좀 전에 들어가셨는데요?아무래도 전하께 말씀드려서 찾기를 부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충격인 듯 궁으로 갔다.

궁-

"전하..신 최영입니다..."

"아,대장.몸은 좀 괜찮아 졌나요?"

"예..그런데...의선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아..그래서 왔군요."

"아무래도 덕흥군의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지요.지금 고려에는 그런 짓을 할 인물이 없으니.덕흥군이라면 나의 원수이기도 하니 이번 기회에 없앨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의선이 다칠 지도 모르니 내일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예.."

은수-

"고문을 시작하라!"

은수는 무서워 덜덜 떨렸다.

"사,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은수는 울 것 같아 입술을 꼭 깨물었다.

덕흥군은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고문이 시작됐다.

첫번째 고문이 끝날 때쯤 은수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멍들어 있었고 살은 찢어져 있었다.

덕흥군은 손을 들어올렸다.

고문을 하는 사람이 뜨거운 쇠를 불에 넣어 달구었다.

그리고 은수의 등쪽으로 가져왔다.

은수는 두려운 눈으로 덜덜 떨었다.

집행인이 뜨거운 쇠로 은수의 등을 지지기 시작했다.

"아아악!아...아악!"

은수는 참을 수 없는 뜨거움에 소리를 질렀다.

땀글요...



"하아~다행히 열은 내렸네요."

"그러게요.."

"근데 독이면 해독제가 있어야 나를 텐데..."

"..."

"저기...장빈선생님,저요...덕흥군한테 가야겠어요.해독제를 받아 와야 하잖아요."

"안 됩니다.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거나 하시고 하는 말씀이십니까?!대장이 이렇게 당한 거,안 보이십니까?"

"그니까!가려는 거예요..이렇게 다쳐서...구해 줘야 하니까...이 사람,전에도 나 구하려고 몇번이나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이제는 이 사람이 위험하게 됐으니까...이번엔 내가 구해주려고 하는데...안 되요?"

은수는 마지막 간절함으로 장빈을 바라보았다.

"후...알겠습니다.대신,절대 몸을 달게 하지 마시고,조심하십시오."

"그러게요."

은수는 옷을 걸치고 나갔다.

끼익....

지하 감옥의 문이 열렸다.

은수는 문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영을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의선...?의선께서 왜...제가 의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내놔요."

"무얼 말씀이십니까?"

"최영씨,그사람한테 쓴 독.해독제.내놓으라고."

"독...말씀이십니까...?"

덕흥군이 능글맞게 웃었다.

"알아요.니가 쓴 독.죄요.해독제."

"그냥...말입니까.."

"뭐가 필요한데요."

"의선,저의 내자로...고려를 지배해보지 않겠습니까."

"하...아직도 포기 안 하셨어요?안 한다니까.못 한다니까?"

"해독제...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

은수는 주먹을 쥐었다.

덕흥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웃음을 띠었다.

"그리 원하신다면...드리지요.해독제.그냥."

은수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받아 나갔다.

"헉헉...왔어요.해독제는 여기있어요."

"아..."

장빈은 서둘러 받아 영에게 해독제를 썼다.

"휴...상태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후...한시름 놓았네요."

"그런것 같습니다."

은수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하~난 잠이나 좀 잘게요.피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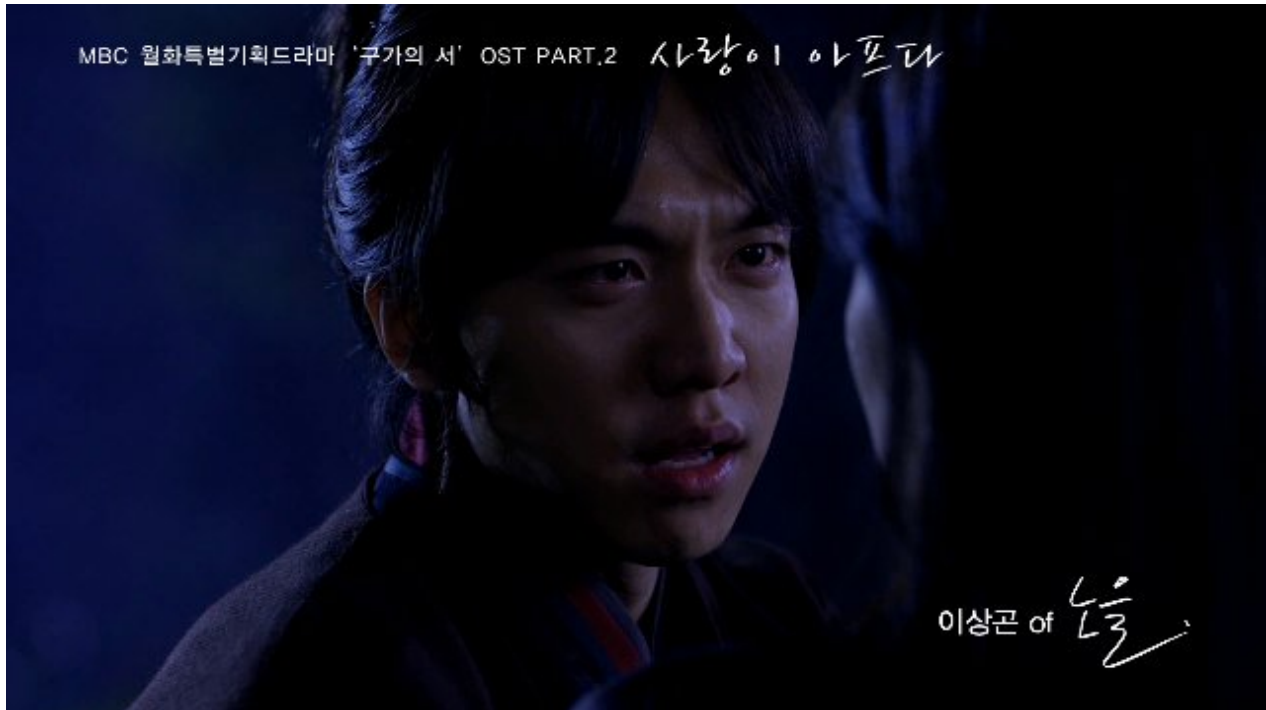
"그러십시오."

은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그 방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꾸벅



그때 은수는 약초를 달이고 있었다.

"의,의선!"

"네?왜요?"

"대,대장이...대장이 도,독에 당했습니다!"

"네...?"

썹그랑!

은수가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은수는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의시...

"최영씨!최영씨....괜찮아요...?눈좀 떠봐요...제발...응...?"

은수는 엉엉 울며 영의 팔을 붙잡았다.

"이사람,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덕흥군의 친국때 덕흥군이 전하께 독을 뿌렸다 하였습니다.그때 막아서다 이리 되었다....들었습니다."

"이.....이 나쁜 놈...!이 미친....덕흥군 같으니...라고..."

은수는 주먹을 쥐었다.

"어...쨌든,이사람,어떻게든 해야죠."

"지금 더기가 독에 잘 듣는 약초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열이 너무 높은데...우선 해열 역할을 하는 약초를 좀 찾아서 달여 주세요."

"그리 이르겠습니다."

장빈이 말하고 나간다.

땃글!!

으아아아양!!!!!!

"안녕하세요?사숙님~"

"우리 의선께서 워편 일로 오셨다?그러,국밥 한그릇 먹고 갈터?"

"네~만두3인분이랑,국밥 두그릇요!"

"그러,조금만 기다리랑께~"

"잠깐,3,인분이요?"

"왜요?그정도는 거뜬해요~"

"아,예..."

은수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기다렸다.

"와~나왔다!"

은수는 나오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영은 입 헤~벌리고 은수를 쳐다봤다.

"으?여이,에 아어거오?(응?영씨,왜 안먹어요?)"

영은 화들짝 놀라 얼른 국밥을 찜다.

"아,예."

약 5분뒤-

"아,잘 먹었다!"

"벌써 다 먹었습니까?"

"네!...?근데 왜 그리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 많은 게 다 어디로 갔나 궁금해서요."

"다 여기 있지요~"

은수는 자기 배를 툭툭 쳐 보였다.

"그럼 이제 가죠."

"네!"

은수는 벌떡 일어났다.

"내일은 좀 바쁠 겁니다."

"왜요?"

"덕흥군이 죄인으로 몰리다가 변방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내일은 전하께서 직접 덕흥군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친국을 하신다 하셨거든요.준비 할 게 많아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잘~됐다!그 놈!그렇게 독을 써 대더니~꼴 좋게 됐네!"

"예...-_-"

"어?다왔다!"

어느새 병영-

"아웅~피곤하다!"

"오늘은 대충 그냥 주무십시오."

"그럴래요."

은수는 옷을 갈아입고 침상에 눕는다.

"잘 자요~"

"예."

영은 의자에 기대 잠을 청한다.

아침-

영은 은수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옷을 챙겨 입고 궁으로 간다.

"친국 준비는 다 되었는가요?"

"예."

영은 감옥으로 가기 전에 우달치들을 체크한다.

지하 감옥으로 내려간다.

'독을 쓰는 자라..왠지 불안하다...'

영은 불안하지만 참고 감옥으로 내려간다.

감옥 안에 덕흥군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내일이면 능지처참을 당하실 텐데.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으신가요?숙부."

"내가 이대로 갈 줄 알았습니까..."

덕흥군이 웃는다.

우달치들이 긴장하여 더 거리를 좁힌다.

덕흥군이 옷자락에서 병을 꺼내 왕에게 확 뿌린다.

영이 막아선다.

그 독이 영의 입 속으로 흘러든다.

"대,대장.."

왕이 놀라 영의 팔을 잡는다.

"저..는 괜찮습니다...전...하..."

덧글 줌요...

"와~이거 예쁘다~"

은수가 청록빛이 도는 가락지 한쌍을 보며 감탄을 했다.

영은 해맑게 웃는 은수를 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 좋으십니까?"

"당연하죠~!얼마나 오랜만의 외출인데~?"

"앞으로 더 자주 오겠습니다."

"와~좋다~"

은수는 이것저것 들춰보며 구경하며 좋아하였다.

그러다 은수가 어떤 옷을 들어 몸에 대 보다가 영에게 물었다.

"이거 어때요?"

"예쁩니다."

"정말요?"

"예."

"그럼,이걸로 할래요!"

"알겠습니다."

영은 돈을 내고 옷을 받아들었다.

"내가 들래요!"

"아...네."

"우리 내일은 궁에도 가고 전의시에도 가 봐요!덕이도 보고,임금님,왕비님,그리고 최상궁님도 만나봐야죠!"

"그러다 사고라도 치시면..."

"아씨,진짜!내가 무슨 사고만 치는 줄 알아요?"

"맨날 그러셨으니까요..."

영이 순간 아차,이미 늦었다.
은수가 빠져 고개를 돌렸다.

"흥!"

"이,임자...죄송합니다.말이 잘못 나와서.."

"그럼,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아니 그...그게.."

"까하하!너무 웃겨...!이 사람 얼굴 좀 봐...아하하!"

"아...임자는 그게 또 웃깁니까?"

"ㅋㅋㅋ...당연하죠...아..배고프다..."

"휴..."

"우리,만두 먹으러 가요!"

"그러죠..."

"아,맛있겠다!"

"벌써 부터..."

땀글 줌요...

(참고:영은 이미 갑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쿵!

"아야!아퍼...ㅠㅠ"

"으..은수야..여기가 그...고려라는 데 맞니?"

"응..맞는 것 같네!어쨌든 빨리 가자."

"아우..그래."

영과 은수 일행은 병영으로 갔다.

병영에 들어서자 우달치들이 일제히 우르르 몰려나간다.

"대장?"

"훈련이나 해!"

"네...."

풀이 죽어 들어간다.

은수가 우달치들을 반가운 표정으로 본다.

"임자,저는 방 안내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빨리 와요~"

"예."

영은 자신의 옆 방에 은수의 부모님 방을 쓰게 해 주고 그 옆방을 은하 방으로 정해 주고 왔다.

"왔어요?"

"예.왕비마마와 전하께 전갈을 드렸으니 지금쯤 아실 거고요."

"응~"

"임자가 쓸 물건,사러 갈 겁니다.저장거리에서."

"까~정말요?좋다~"

땃글에 원한이 사무치는군요...



"아,놀래라."

영이 듣고 있다 은하라는 걸 깨닫고 일어났다.

"아,일어났어요?"

"웬니까."

"뭐가요?"

"왜 왔냐구요."

"아.내일 간다 기에... 은수 언니 버리고.나랑있어요."

"무슨.나가십시오."

"뭐라고요?"

"나.가.시.라.고."

"날 버리고 갈거예요?"

"필요하다면."

"아...알았어요.."

은하가 나와 입술을 깨문다.

"두고 봐..."

아침..

"엄마!밥!"

"으휴..여전하네.."

" 근데 엄마.나 오늘 고려로 돌아갈 건데 엄마 아빠도 같이 갈래?"

"나야 너만 좋다면."

"앗싸!그럼 가는 거다!아빠는 내가 설득시킬게!"

그렇게 출발.

"영씨!왕비님이랑 임금님이랑 우달치들 너무 보고 싶다!"

"그러십니까?"

"당근이죠!"

도착하였다.

"아!아직 열려 있다!"

"뭐가?"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들어가!"

은수는 가족을 밀어넣고 영과 함께 들어갔다.

휘이잉..



"영씨!같이 가요!"

"피곤하다면서요."

"괜찮아요!"

"아.예."

"은수야?닭장청소~!"

"아우!알았어요!"

은수가 가자 은수의 아버지는 영에게 말을 타 보라고 하였다.

"고려에서 왔다니,말은 잘 타겠지?한번 타 봐."

"예."

영은 제일 사나워 보이지만 직감적으로 야생마라는 것이 느껴진 말에게 다가갔다.

"그 말은 위험한데..."

"괜찮습니다."

영은 말을 쓰다듬어 주고는 올라탔다.

영은 말의 고삐를 쥐고 살짝 흔들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영이 탄 말은 방향을 자유자재로,속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 같았다.

"오..잘타네!"

"아..감사합니다.."

영과 은수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최영씨!우리 고려로 돌아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준비해야죠."

"아.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럼.."

영은 인사를 하고는 올라갔다.

그렇게 밤...

은하가 영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흠칫 놀랐다.

영이 검을 옆에 두고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은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최영씨~열 내렸으니까 씻고 싶으면 씻을래요?"
"예."
영은 대답하고 은수가 내미는 옷을 받는다.
"혹시,차가운 물로는 씻으면 안 되요!심해져요."
영은 뜨끔하고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는 욕실로 들어 간다.

영이 씻고 나온다.
"아유..당신 아프느라 10일 정도 갔네요.."
"..."
"아!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긴 가야 하겠죠?오랫만에 여기 왔는데."
"예.."
"에이!말한 김에 당장 가요!"

...초스피드로 준비 끝...
"가요!"

은수가 차를 탄다.

그렇게 약 2시간 후..

딩동딩동

"누구세요?"

"엄마 나 은수야!"

"으..은수야?잠깐만..!"

달칫!

"엄마!나 왔어!"

"홀썉..너 납치 됐다면서?"

"아니..내 운명의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행이라고 할까..ㅎㅎ납치 맞아."

영은 램시리 머쓱해진다.

"이 사람은 누구니?"

"응,최영씨야."

"뭐?고려시대..최영?"

"응."

"안녕..하십니까."

영이 인사한다.

"말투가.."

"이 사람 고려 에서 와서 말투가 원래 그래^^"

"그렇구나."

그때 은수의 아버지가 나온다.

은수가 다 설명한다.

"그래,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그..게...부모님은..."

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인다.

"돌아...가셨습니다..."

"..."

"..."

"..."

다들 입을 다문다.

"그럼,니 직업은 뭐냐?"

"직업...요?"

"아.하는 일요,하는 일."

은수가 재빨리 알려준다.

"그..무사입니다..무사.."

"직업 품좀 나네!?"

"?..?"

영은 대충 넘기고는 시선을 돌린다.

"은하..는요?"

"?아..은하?위층에.."

"응?은수 언니왔어?"

"으..응.."

"까악!옆에 그 남자는 누구야?설마 남친 생겼어?"

"응,인사해요.내 사촌동생이에요."

"안녕하십니까..최 영 이라고 합니다."

"오~이름도 멋지시네~저는 은하예요."

"예.."

영은 시선을 돌려 버린다.

"앗참,나는 일이 있어서..."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괜찮겠어?농장 일이라 힘들텐데."

"예."

"그럼,같이 가자."

영과 은수의 아버지는 같이 나간다.



은수가 택시를 잡는다.
택시가 출발한다.
영은 신기고 뭐고 아프기만 하다.
"최영씨.어떡해요..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은수는 울상이 되어 말한다.
병원에 도착한다.
은수는 영을 끌고 병원으로 들어간다.

약20분 후...
어느새 약을 받아 집에 들어왔다.
은수는 기운이 없는 영에게 약을 억지로(?)먹이고는 침대에 눕힌다.

죄송해요.

집들이 땀에 너무 바빠서 글을 조금밖에 못 올렸네요..

글구 오늘도 다른편 시간이 되면 올릴게요..

'소국...'

편도 있으니 (신의 뒷이야기)

보시길 바래요~



영은 살짝 눈을 떠보았다.

아직도 열은 좀 있고 머리도 부서질듯 아프지만 조금 나아졌다.

영이 살짝 상체를 일으켜 앉자 영의 옆에서 자고 있는 은수가 보인다.

물수건이 후두둑 떨어진다.

"?...아우..최영씨! 일어났어요? 다행이다! 어제 열이 얼마나 올랐었는지 알아요? 아주 펄펄 끓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잠들어서 기절한 줄 알고 생난리를 쳤다니깐~"

"그..랬습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어때요? 누워요~!"

은수는 영을 침대에 기대게 하고는 나간다.

조금뒤...

"영씨~ 나와요~"

영이 벌떡 일어나 나간다.

은수가 식탁 앞에 앉아 웃는다.

"흐.내가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좀 해요~혼자사니까~"

"..."

영이 탁 앞에 앉는다.

은수가 허겁지겁 밥을 흡입(?)하기 시작한다.

영이 먹지 않자 은수가 밥을 퍼 반찬을 얹어 준다.

"빨리 먹어요~"

영이 밥을 (어쩔수 없이)조금 먹는다.

그러고는 살짝 얼굴을 찡그린다.

"?왜그래요?아!당신 지금 몸살이지!입맛 없겠다!"

"예..조금.."

"조금만 기다려요~!죽 줄테니까!"

영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기댄다.

은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들고 나온다.

"아유~!죽도 어렵네!"

영을 조금 떠 먹는다.

은수가 그릇을 뺏어 영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다.

"..?웁!지..지금 이게 대체 뭐하는..!"

은수는 아랑곳 않고 영에게 죽을 다 먹인다.

"당신..병원 가야 겠어요!열도 다시 오르는 것 같고..."

영은 대충 의료 시설이겠거니 짐작한다.

준비를 끝냈다.

"아~집에만 있으니 피곤했는데~잘됐다~아.최영씨는 열이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아프겠네...미안해요~"

영은 얼굴을 찌푸린다.

머리가 깨질것 같다.

여러분~

글 읽으셨으면 댓글 써 주세요~

안 쓰시면...

제도 글 안 씁니다~

그러니...

제발...

SBS 드라마 '신의' OST -Forever
(Carry On-Pf Ver.)

"최영씨!당신 일어나요!"

최영이 당황한 얼굴로 이마를 짚는다.

그러고는 자신의 몸이 펄펄 끓는걸 깨닫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다.

"자,자!당신 안에서 나랑 같이 자요!그럼!"

"아니 지금 무슨..!"

"소파에서 자겠다면!그럼 더 상태 안좋아지거든요!?같이 자야 좀 돌봐주지!"

영은 어지러워 벽을 짚는다.

은수가 걱정 되어 질린 얼굴로 영을 침대로 끌고가 눕힌다.

"어우~진짜 펄펄 끓네.."

"임자,나는 램.."

"아이!진짜..좀 가만히 누워 있어요!당신 지금 아프잖아.."

영은 은수의 표정을 보고 어쩔수 없이 눕는다.

은수는 쏘르르 뛰어나간다.

잠시후...우당탕 쿵쾅!

팩!

영이 일어나려 한다.

은수가 밖에서 소리친다.

"나오지 마요오오오오--!"

영이 뜨끔하여 늑는다.

은수가 바가지를 들고 들어온다.

"휴우.최영씨~좀 자요~"

"됐습니...다.."

영이 숨을 몰아 쉬며 말한다.

은수는 물수건을 짜며 말한다.

"내가 아는데~당신,잠도 안자고 몸 막 굴러됐죠?"

영은 이제 말할 힘도 없어졌다.

"최영씨.."

은수는 최영을 바라본다.

최영은 어느순간 까무러치듯 잠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사람이 이렇게 치렀을까...

나 때문은 아닐까...'

은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물수건을 짜서 영의 이마에 올려 준다.



와~

제 글을 보시는 분이 의외로 많네요~

그럼 오늘도 힘을 내서~

아자아자!!

은수는 오래간만에 집에 온 기쁨으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와~역시 집이 최고야~!"

영은 은수를 보며 자신도 웃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웃는다.

"으...근데 너무 짹짹하다...최영씨~나 씻고 나올게요~집 구경 하고 있어요~"

"예."

은수가 옷을 챙겨 들어가자 영은 찬찬히 집을 둘러본다.

그러다 영은 창가에 놓여있는 소국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여 향을 맡는다.

영이 생각나는 고려에는 소국 밖에 없다.
소국을 한번 보고는 일어난다.
은수가 나온다.

"아~개운하다~아.최영씨.내가 최영씨 옷 좀 사줄게요.기다려요."
최영은 자신은 옷이 있다고 반박하려다 하늘사람들이 죄다 입었던 과상한(?)옷을 떠올리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은수가 나간다.
최영은 잠을 못 자 너무 피곤하여 소파에 기대 눈을 감는다.

삐삐삐.첼컹.
문이 열리고 은수가 들어온다.
"최영씨~나 왔어요~"

은수는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는 최영을 발견한다.
"어지간히 피곤했으면 소파에 기대 잠들었을까?후후"
은수는 영이 귀여워 바라본다.

그러자 원만한 여인보다 더 고운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와...진짜 완전 잘생겼어...그렇게 냉랭했던 사람이 자는 거 보니까 완전 아기같아...크크크..."
은수가 영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 내리자 영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다.

"어..언제 왔습니까.."
"방금 전예요."
"아.."
"ㅎ씻고 나와요."
은수가 영에게 옷을 주며 말한다.

"예."
영이 들어가 평소대로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온다.
"영씨.늦었어요.자요.어디서 잘래요?침대에서,아님소파?"
"그게..뭔니까?"
"아..소파 여기,침대는 여기."
"그럼.제가 이곳에서 자겠습니다."
"불편할텐데?"
"괜찮습니다."
영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왠지 머리가 멍하여 비틀한다.

"최영씨! 램챙아요?"

"램챙...."

은수가 영의말을 끊고 영의 이마를 짚는다.

"..최영씨.당신...열나요.."



신의 ost를 들으시면서 즐기세요~

"어허아~기상!!기상!"

쿵!

"으..뭘,웁니까?지금!"

최영은 의자에 기대 실로 오랜만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 은수가 소리치자 놀라 의자에서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최영씨~하늘문 닫힐 시간,얼마 안 남았거든요?잠꾸러기같이 자지 말고 어서 일어나요!"

"크.."

최영이 신음소리를 낸다.

"그럼,전하께 서찰도 보내놔오니 지금 바로.."

"?크헉!안돼요!짐 아직 안 싣단 말예요!"

"하..그럼 지금 짐도 안 싣고 가자고 난리 친 겁니까?"

"잠깐,1분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집을 싸고 하늘문 앞에 도착한 영과 은수.

"이제,가요!"

영은 궁이 있을 쪽을 돌아보며 고개를 살짝 숙인다.

은수는 그런 영의 모습을 보고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낀다.

"갑시다."

"...네!"

은수는 영의 손을 잡고 하늘문 안으로 한걸음 내딛는다.

온몸을 조이는 느낌과 동시에 숨이 막혀온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흐르고...

어딘가에 울컥 내뿜어진다.

사방이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최영씨.우리 이제 몰래 내 집까지 갈 거예요.그니까 신기한게 많더라도 너무 두리번 대지 말고.티내지 말고.OK?"

"??...예."

영은 그냥 알았냐는 말이겠거니 넘겨짚고 대답한다.

"ㅎㅎ좋아요,이제 가요!"

"예."

영은 웬지 모르게 그녀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궁금해진다.

"휴~그래도 다행인게,내가 사는 집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까."

"ㅎㅎ"

그렇게 길을 통해서 건다 보니 오피스텔의 정원으로 이어진다.

"여기예요!들어가요."

"예."

최영은 네모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건축물에 새삼 감탄하며 들어간다.

어느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며 은수는 영에게 설명한다.

"이건말이죠~엘레베이터라는 건데 내가 워낙 높은 층에 살아서 이걸 타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이 들어서 타는 거예요~"

"예."

25층 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때 방송이 흘러나온다.

최영이 놀라 검을 빼 들고 주위를 경계한다.

"아,아니예요~이건 몇 층인지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적이 아니고~"

"그..형습니까.."

최영은 멋쩍게 대답한다.

삐삐삐삐~

딸깍.

은수가 문을열고 안으로 영을 데리고 들어간다.

후후~

오늘은 어떤 분의 부탁으로 좀 길게 나갔어요~

재밌게 읽으셨으면 댓글은 필수!

아시죠?



푸른 달이 뜨던 날 ❄️

"임자.배고프시다면서요.들어갑시다."

"휴우.네."

역시 대만보다는 밥을 택하는 은수.

"앗참!근데요..최영씨."

"예.말씀하십시오."

"...말해도..되나.."

"괜찮습니다. 말하십시오."

"그럼..말할게요.최영씨.하늘세상에..나랑같이..갈래요?"

"...예?그게 무슨.."

"알아요,말이 안 된다는거.그래도..!한달에 한번은 열리니까..어때요?"

"음..임자와 함께라면..좋습니다."

"앗싸!그럼~내일 같이 가요~~!한달은 여기서~한달은 하늘세상에서~~!"

"그리 좋습니까?"

"그럼요~~당근!아,바압~"

"예.밥 드려라."

"넛!"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늘세상이예요~~

웬지..고려 영이 너~~무 아까워서요~

둘다 포기할 수가 없네요~~

π π π



푸른 달이 뜨던 날 ❄️

은수는 영의 손을 세차게 잡아 흔든다.

그러다 자세를 고쳐잡고 묻는다.

"지금..언제쯤이에요?왕비님은 어때요?괜찮으세요?"

은수도 아마 왕비의 난산이 걱정되었나 보다.

"..예."

"오.다행이다."

은수는 한숨을 내쉬더니 얼굴을 찡그린다.

"?이.임자.왜.그럽니까."

"으..배고파요.."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네.."

은수와 영이 병영으로 내려간다.

"대장?...그분은..의,의선?의선!"

"까~~대만씨!잘 있었어요?"

"네!"

대만은 은수의 손을 덥석 잡는다.

퍽!

영이 대만의 머리통을 내리치며 은수에게 말한다.

헤~처음이라 한자 적어봤어요!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ㅎㅎ

신의

블로그 천혈을 넘어 <http://blog.daum.net/pororowoo3>

저자 다이아

발행일 2013.09.11 16:56:15

 블로그